

# 鄉歌의 時間意識 研究

趙然淑\*

<차례>

- I. 서론
- II. 文學과 時間
- III. 鄉歌에 나타난 時間意識
  - 1. 現在 肯定의 時間意識
  - 2. 現在 否定의 時間意識
- IV. 결론

## I. 서론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내재하며, 시간의 흐름은 의식의 흐름과 일치한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활동이나 경험적 자각에 따라 자신만의 내밀한 시간을 형성한다. 즉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내·외적 경험을 통해 심적으로 다양한 질적 변용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질적 변용은 인간에게 변화와 생성의 힘을 부여하며 나아가서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문학에 나타난 시간은 이렇게 질적으로 변용된 다양한 시간, 즉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으로서 작품의 미적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적 상상력도 바로 이러한 시간의식에서 그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식은 물리적이고 객관적 시간을 각 인간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시간으로 내재화하며, 문학에서는 특히 독자적인 의미를 재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 연구에서 시간의식을 파악하는 일은 문학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소재 현전 향가 14수 중 작품 수가 많은 4구체와 10구체 향가의 시간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중 처음부터 아예 주술적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창작된 <兜率歌>와 <棼星歌>, 결사에 해당하는 後句가 전하는 않는 <怨歌>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 II. 文學과 時間

문학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언어로 대변하는 것이라면, 모든 문학 작품은 인간이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성립한다. 특히 시간은 인간 의식의 흐름과 병행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식 가장 깊이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런 내재적 시간의식은 문학에 다양한 시간 양상으로 표출되며, 적극적 의미에서 시간을 의식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에

\* 숙명여자대학교

있어서 시간은 주로 주관적·경험적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시간을 주관의 인식으로 파악한 최초의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원래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의 세 가지 時間이 있다고 하는 것은 妥當하지 못하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과거의 것의 現在, 現在의 것의 現在 그리고 未來의 것으로서의 現在가 있을 따름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精神에는 이 세 가지 이외에는 存在하기 않기 때문이다. 過去의 것의 現在는 記憶이며, 現在의 것의 現在는 直觀이며, 未來의 것의 現在는 豫期인 것이다.’<sup>1)</sup>라고 하여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일단을 피력하였다. 즉 객관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적인 의식으로 바꾸어 그것을 각각 기억, 직관, 예기로 환치하였던 것이다.<sup>2)</sup> 한스 마이어호프는 문학에서의 시간의 의미와 문학적 시간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文學的 時間은 인간의 생활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적 시간, 즉 경험의 막연한 배경의 일부가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문학적 시간은 경험 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經驗的 時間(time in experienc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적 시간은 심리학적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내용, 즉 경험된 사건들의 承繼的 서열”<sup>3)</sup>과 주관적 상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을 개인적으로 측정할 때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배분과 불규칙성·비일관성 등을 그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自然的 時間(time in nature)은 객관적 시간 측정의 특성인 규칙성·통일성을 지닌 定量的 단위로 구성되는 公的인 시간으로서, 자연에 있어서 “시간 관계의 객관적 구조에 의해 정의되는 시간 개념”<sup>4)</sup>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경험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자연계의 객관적 구조에 적용되는 과학적 시간이다. 따라서 이런 “물리학적 시간은 내용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고 내용 없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을 우리는 시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sup>5)</sup> 것이다.

李昇薰은 시간의 두 가지 양상으로 日常的 時間과 文學的 時間을 제시하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의식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시간의 의식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였다. “현상학적 개념에 따르면 의식은 노에시스(noesis) -노에마(noema)적 구조이다. 훗설에 의하면 의식은 志向性的 개념이며, 그것은 지향적 행위의 양상과 지향된 내용이 서로 구조적으로 통일된 세계이다. 지향성의 개념은 첫째로 노에마, 곧 지향되거나 의미된 것으로서의 대상을 먼저 검토하고, 둘째로 노에시스-노에마적 상호 관련으로서의 의식을 검토하고, 끝으로 객관성의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완전하게 해명된다.”<sup>6)</sup> 포괄적으로 그것은 의식 활동이 일종의 변화임을 뜻하고, 개인적이며 비일상적인 경험의 차원에 시간이 투영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승훈은 文學에 있어서 時間이 자아의 동일성과 맺는 관계를 강조하는 마이어호프의 인식론적 접근법을, 문학적 시간을 하나의 구조로 보고 그 구조를 형성하는 소위 구조적 요소들의 관계를 살피는 구조적 접근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학적 시간을 “사실적 시간과 낭만적 시간, 초월적 시간과 실존적 시간, 신화적 시간과 공간적 시간”<sup>7)</sup>의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였

1) Han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Universty of California Press, 1974, p.8.

2) 오세영, 「文學에 있어서 時間의 問題」, 『한국문학』, 통권 27호, 1976.1, 263쪽.

3) 토를라이프 보만, 허혁 옮김, 『히브리적 思维와 그리스적 思维의 比較』, 분도출판사, 1993, 168쪽.

4) Hans Reichenbach, *The Rise of Scientific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p.144.

5) 토를라이프 보만, 앞의 책, p.168.

6) 李昇薰, 『文學과 時間』, 二友出版社, 1983, 78~79쪽.

다.

첫째, 사실적 시간과 낭만적 시간은 水平的 論理로 나타나는 시간이다. 사실적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발전하는 시간의 계기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낭만적 시간은 사실적 시간과는 逆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은 미래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는 태도를 보이며, 역사나 미래의 진보에 대해 짙은 회의를 나타낸다. 낭만적 시간에서 취하게 되는 삶의 태도는 시간에 대한 불신에서 기억의 논리로 전개되는 과거에 대한 신뢰이며, 이는 곧 과거지향성으로 구체화된다.

둘째, 垂直의 論理에 따를 때 나타나는 시간이 초월적 시간과 실존적 시간이다. 초월적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계기성이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가 위로 올라가는 양상이다. 이런 시간은 현재 순간에서 바로 상향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초월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실존적 시간은 초월적 시간의 상향성이 逆의 방향을 취하는 것으로서, 하향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은 미래에 대한 신뢰도, 과거에 대한 신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하늘의 세계를 향하여 종교적으로 초월하지도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존적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오직 현재의 한 순간만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로서, 삶의 긴장이나 갈등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셋째, 循環의 論理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이 신화적 시간과 공간적 시간이다. 신화적 시간은 시간의 순환 구조에 의해 유한 속에서 무한을 재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삶을 재현하는 것은 곧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를 전개하는 것으로, 신성한 시간 속에 재생과 영원을 지향하는 신화적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공간적 시간은 계기적으로 발전하는 시간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대상으로 축약함으로써 시간을 공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간의 공간화는 현재의 한 순간만이 제시되며, 계기성 자체를 거부한다. 이와 같이 文學的 時間은 주관적인 상대성과 시간의 계기성을 따르지 않는 可易性을 지닌 시간으로, 대개 자유 연상이나 내적 독백 등의 양상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학적 시간은 단순히 일상적 시간에 대치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비밀상적인 주관적 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을 수용하면서 삶의 의미를 암시하는 독특한 시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文學에 나타나는 時間의 樣相을 이재선은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과 카이로스(kairos)의 시간”<sup>8)</sup>으로 命名한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시계와 자연의 객관적인 시간, 즉 시계에 의해서 계측되는 시간이며,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음과 경험 속에서 인식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인간에게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 이외에도 마음 속의 시간, 즉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前者가 시계와 자연의 客觀的·外的 時間이라면, 後者は 시계침과 관계 없이 마음 가운데서 성취되는 主觀的·內的 時間인 것이다.

조동일은 문학을 시간성·대상성·고정성을 특징으로 삼는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로 보고, 문학 작품은 작품적 질서에 따라서 읽어야 하고, 작품의 질서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작품적 질서 중 시간적 질서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진행의 시간과 내용의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進行의 時間은 작품이 서두에서 결말까지 진행되는 데서 존

7) 李昇薰, 위의 책, 180~191쪽.

8) 이재선, 『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7, 287쪽.

9)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154쪽.

조동일은 문학 작품은 작품적 질서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작품적 질서를 음성적 질서, 시간적 질서, 공간적 질서로 나누었다.

재하는 시간이며, 內容의 時間은 작품 내용에서 설정되는 시간을 뜻한다.

時間에 대한 위의 논의는 모두 시간의 본질인 계기적 흐름을 토대로 한다. 문학적 시간론에서 시간의 계기성은 특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은 본래 시간적 존재로서 시간의 흐름은 곧 의식의 흐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文學과 時間은 내면적인 상호침투성을 지닌 것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학에 있어서 시간이란 그것이 주관적 인식일 때 참다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sup>10)</sup>

본고에서는 향가에 나타난 시간의식을 고찰하기 위해 기존의 시간론을 수용, 시간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의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 III. 鄉歌에 나타난 時間意識

#### 1. 現在 肯定의 時間意識

##### 1) <署童謠>

善化公主니른  
늪 그스지 얼어두고  
맛등바을  
바미 몰 안고가다<sup>11)</sup>

<署童謠>는 진평왕 때 서동이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로 가서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마를 주며 부르게 했다는 노래이다. 일종의 동요, 언어적 주술성을 지닌 참요의 성격을 지닌 이 노래는 현장성 있는 구애의 노래이다. 이는 “아무개는 아무개를 좋아한다.”는 식의 오늘날까지 향간에 민요나 동요로 불려지는 노래와 유사하며, 이런 유사점에서 <署童謠>가 민요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署童謠>에 제시된 경험은 특수한 개인으로서 겪는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경험, 곧 민요적인 일반적 경험이다.

<署童謠>의 주된 시제는 현재이다. 선화공주가 남 몰래 짝을 맞추어 두고 밤이면 맛등방을 몰래 안고 가는 현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면에 드러난 현재는 <署童謠>가 지닌 현장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제이기도 하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 이런 놀랄만한 사건이 있기에 문제는 듣는 이에게 더욱 참여하게 다가오며, 부르는 이에게는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문면에 과거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그 과거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사실로 인한 현재만이 문제가 되는데 발화 상황으로 볼 때 이는 부정적 대상은 아니다. 향간에 불리는 민요의 성격으로 볼 때 이런 노래의 목적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목은 실제로 웃음을 띠고, 약간은 장난스럽게 實演되며, 단순히 현실적 상황이 그러함을 알려 줄 뿐이다.

10) 吳世榮, 앞의 논문, 264쪽.

11)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1957.

이하 제시되는 모든 향가 작품은 양주동의 해독을 따랐다.

12) 백영정병옥선생10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39쪽.

선화공주가 맛동방을 몰래 만나 사랑을 이루는 지금 이 시간은 분명 긍정적인 시간이다. 사랑의 힘에 의해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현재 이 시간은 분명 삶을 충실하게 하는 충족의 시간이다. 이때 현재는 서정적 자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서 자신의 가장 절실함을 대변하는 긍정적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K C I

## 2) <獻花歌>

단배 바회 궤회  
자복온손 암쇼 노히시고  
나홀 안디 붓흐리샤든  
꽃홀 것가 받즈보리이다

<헌화가> 역시 수로부인 설화라는 맥락에서 분리해 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구애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즉 배경 설화에 나와있는 특정한 서사적 정황만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헌화가>를 단순히 한 남성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꽃과 함께 자신의 사랑을 바치는 노래로 본다면 이 노래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으로서 역시 민요적 성격을 띤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헌화가>의 시제 역시 현장감 있는 현재이다. 지금 현재, 벼랑의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르는 구애의 노래이다. <서동요>와 마찬가지로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장성이 강조되는 현재만이 제시되어 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현재는 분명 긍정의 시간이다. 이 현재는 현전, 만남, 관계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하며, 상대가 현전하는 것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시간이다.<sup>13)</sup>

이때 현재는 서정적 자아와 독립하여 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는 생명체로서 인식된다. 절대적 생명을 부여받은 이 시간은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과는 달리 생동감 있고 희열이 넘치는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런 힘은 서서히 자신에게 동화되어 새로운 힘을 분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는 바로 창조의 시간이다. 화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생성의 힘을 지닌 창조의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13) Friedrich Kummel, 권의무 역, 『時間의 概念과 構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6, 60쪽.

3) <風謠>

<풍요>는 배경설화에 제시된 대로 영묘사의 장육상을 만들 때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날라다 주며 부른 민요이다. 민요의 성격에 맞게 짧은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단순하고 소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셔럽다라  
 셔럽다 의내어  
 功德 닷꺾라 오다

<풍요>의 배경 설화에는 성안의 남녀들이 진흙을 날라다주며 부른 노래하는 기록은 없다. 배경설화에는 ‘故傾城土女爭運泥土 風謠云 如來如來如來……’ 라고 하여 ‘風謠云’은 앞 문맥과 분명히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지금 시골 사람들이 방아짚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모두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시작됐을 것이다.’<sup>14)</sup>란 기록으로 보아 <풍요>가 방아짚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부른 일종의 노동요임을 알 수 있다.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대개 현장감을 지닌 현재의 노래이다.

서러운 중생이 공덕을 닦으러 오는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으로서 민요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삶의 고통이나 설움을 일을 해서 해소시키고, 하고 있는 일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하고 있는 일로 공덕을 쌓는 것과 이를 통한 고통과 설움의 해소이다.

이렇게 고통과 설움을 해소하고 공덕을 쌓는 시간은 분명 긍정적 시간이다. 직선적 연장으로서의 객관적, 형식적 시간을 초월해 이전도, 이후도 갖지 않는 순수 시간으로서의 현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침범 당하지 않는 완전하고 거룩한 시간이다.俗된 것을 털어내고, 聖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된 시간이다. 나아가 순수한 정신을 표상하는 지금 이 시간은 분명, 창조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다.

2. 現在 否定의 時間意識

1) <安民歌>

<안민가>는 충담사가 지은 ‘백성을 편안히 다스리는 노래’이다. 충담사는 나라 안 君·臣·民의 관계를 가족간 父·母·子의 관계에 비유하였다. 아버지인 임금과 어머니인 신하가 백성을 어린 아이 돌보듯 잘 먹이고 다스리면, 즉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면 나라가 편안히 보전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君은 어비어  
 臣은 득스살 어시어  
 民은 일흔 아회고 ㅎ살디  
 民이 득슬 알고다

14) 『삼국유사』 권1, 良志使錫條.  
 “至今土人 春相役作 皆用之”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싸홀 브리곡 어디갈더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으 쾨다이 뉘다이 뉘다이 호닐둔  
나라악 太平호니있다

경덕왕 때는 해의 변괴가 있어 <도솔가>를 지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나라의 수호신인 오악과 삼산의 신들이 때때로 대궐 뜰에 나타나 보였다. 이런 현상은 범상치 않은 징조였으며, 문면에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 이를 먹여 다스려져’<sup>15)</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현실이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의 생활도 매우 불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태양의 변괴가 일고, 백성이 살기 어려워 탄식하는 현실은 분명 부정적 대상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임금은 아버지처럼, 신하는 어머니처럼 어린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임금과 신하의 사랑을 알아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하며, 나라가 태평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민가>에 나타난 시간의식은 현재를 부정하고, 善政이 행해지는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의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상정하는 것은 실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이는 곧 삶의 총체적인 완성을 의미한다. 이때 미래는 충만하고 풍요롭게 다가오며, 이를 위한 긍정적 의지는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된다.

## 2) <讚耆婆郎歌>

열치매  
나토안 드리  
힌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란 나리여히  
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사 지벽히  
郎의 디니다샤온  
므스미 궁홀 좃누아져  
아으 जु가지 노파  
서리 몬누울 花判여

<讚耆婆郎歌>는 제목 그대로 기파랑을 찬양한 노래이다. <讚耆婆郎歌>에 대한 배경 설화나 구체적 설명이 없어 기파랑이 어떤 인물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문면에 드러난 대로 화자는 달과 새파란 나릿물에서 기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건 기파랑을 현현시킨다. 특히 달과 물은 生生力을 가진, 재생의 원형 상징이므로 기파랑은 화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생생하는 존재이다.

15) 이 대목을 서재극은 ‘탄식하는 못창생 / 이를 먹도록 다스릴지이다’라고 해독하여 백성이 살기 어려워 탄식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달과 물이라는 재생의 힘을 빌어 화자 앞에 모습을 드러낼 뿐, 화자 앞에 직접적으로 現前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낭이 지니시던 그 높은 뜻과 마음의 끝을 좇고자 한다. 잣나무는 높고 곧은 고고함을 상징하며, 시간적으로는 불변하는 영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 대상을 볼 수 없는 현실, 어떠한 상황이건 상대를 그리워해야만 하는 현실은 상실과 결핍의 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낭이 지니던 마음의 끝을 좇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 즉 미래에 대해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현재를 지양하고, 높은 뜻을 지향함으로써 그는 보다 의미있는 내일, 보다 가치있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일상적 삶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로운 삶을 산출하고 이를 고조시키는 활동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근원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인간만이 자신의 미래를 갖는다. 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향해 定位한다. 의식이 앞서가는 미래는 시적 화자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 3) <願往生歌>

<願往生歌>는 배경 설화의 원문을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 작가가 광덕이 되기도 하고, 광덕 처가 되기도 한다. 광덕이 먼저 죽자 광덕과 함께 수행하던 엄장은 광덕 처에게 동거를 요청했다. 이에 광덕 처는 광덕의 완벽한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며 엄장을 꾸짖었다고 한다. 작자가 누구이든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문면에 드러난대로 작품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들하 이데  
 西方<sup>3</sup>장 가사리고  
 無量壽佛前에  
 님곰다가 숲고사서  
 다담 기프산 尊어히 올위러  
 두손 모도호솔바  
 願往生 願往生  
 그릴 사름 잇다 숲고사서  
 아으 이몸 기터 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살까

화자는 달님에게 무량수불전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알려 달라고 한다. 작자가 처해 있는 지금은 아직 수행이 덜 된, 세속적인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한 결핍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영원을 달에게 의탁함으로써 왕생을 회구하는 것이다.

시간으로 볼 때 달은 순환적 시간을 의미하며, 재생의 원형 상징으로서 영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願往生歌>의 화자는 영원의 대상을 통해 왕생이라는 영원을 회구하는 것으로

로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미래는 분명 시간의 피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종교적인 초월의 시간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종교적 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는 종교적인 비원에서 생겨난 것이며, 끝없는 생명에 대한 강력한 희구에서 비롯된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시간의 지향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인간이 구원되는 시간, 영원 속에서 지복한 삶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거룩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에 의해 지배되며, 강력한 힘을 가진 재생의 시간이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최상의 목표, 최상의 미래를 성취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작품이다.

#### 4) <祭亡妹歌>

<祭亡妹歌>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지어 바친 노래이다.

生死路는

에 이사매 저히고

나는 가느다 말스도

묻다 닐고 가느넛고

어느 그술 이른 버르매

이에 저에 떠딜 님다이

흐든 가재 나고

가는 곧 모드온더

아으 彌陀刹애 맞보올 내

道닷가 기드리고다

누이가 없는 현재는 상실의 시간이다. 인생의 덧없음이 물밑 듯 엄습하는 부정의 시간이다. 세상에 나서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인간의 삶이 더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인간의 생명이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보잘 것 없음이 느껴지는 절실한 시간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런 상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기원한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佛性에 의해 극복하고자 한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계속 도를 닦음으로써 미타찰에서 누이와 만날 날을 소망한다.

이런 소망과 기대, 기원이 있을 때 불우했던 현재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 미타찰에서 만날 그 시간, 영원의 미래가 있기에 화자는 생명에 가득 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즉 죽음이란 소멸 바로 그것이며, 그 이상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허무주의적 관점과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고 절대적인 세계를 소유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주의적 관점이다.<sup>16)</sup>

<祭亡妹歌>의 시적 화자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그는 죽음 앞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16) 오세영, 앞의 논문, 271쪽.

그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을 완성하고, 영생을 얻고자 능동적 자세를 취한다.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이 단절도, 인생의 종말도 아니며 새로이 열리는 세계, 이미 시간에서 해방된 초월적 세계의 시작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의 고독과 허무성은 극복된다.<sup>17)</sup>

이와 같은 시간의식은 대개 종교적 세계관을 표명하는 작품에서 드러나며,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는 결국 종교적인 이상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 5) <禱千手大悲歌>

<禱千手大悲歌>는 희명이 눈이 먼 딸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였더니 광명을 얻게 되었다는 설화를 배경으로 한다.

무루플 고조며  
 둘숯바당 모호누아  
 千手觀音스 前아히  
 비슬볼 두누오다  
 즘손스 즘눈홀  
 흐든홀 노흐 흐든홀 더읍디  
 둘 엽는 내라  
 흐든사 그스시 고티누웃다라  
 아으 나에 기티살든  
 노흐디 뵘 慈悲어 큰고

두 눈이 먼 현재는 분명 상실과 결핍의 시간이다. 이런 현실적 고난을 화자는 神力에 의지해 극복해 보고자 한다. 지존하신 신 앞에 무릎을 낮추고, 두 손바닥 모아 온 정성을 다해 그는 기도한다. <제망매가>의 화자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절감한 화자는 신을 향해 광명의 미래를 청원한다.

이 때 광명은 단순히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깨달음, 道나 法을 향한 해안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빛이 충만하고, 가슴 가득 희열을 느끼는 환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래라는 시간은 우려와 희망, 불안과 환희, 염려와 해방이라는 二面性<sup>18)</sup>을 지니고 있다. <禱千手大悲歌>에 제시된 미래는 희망과 환희, 해방을 의미하며, 화자에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 이유를 제시한다. 이는 현재 부딪치고 있는 갈등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로 초월적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초월적 삶의 태도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긴장을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하게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 6) <遇賊歌>

<遇賊歌>는 중 영재가 만년에 이르러 장차 남악에 은거하러 가는 도중 대현령에 이르러 도

17) 정혜원, 『時調文學과 그 內面意識』, 상명여대출판부, 1989, 36쪽.

18) 김규영, 『시간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93, 277쪽.

적 60여 명을 만나 지었다는 노래이다. <遇賊歌>는 작품 원문에 缺字가 네 군데나 있어 해독에 유독 많은 혼란을 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제 막스매  
중 모드렛단 날  
머리 □□ 디나치고  
연썸 수메 가고쇼다  
오직 외운 破戒主  
저플 즈쉬 느외 쏘 돌려  
이 잠글사 다내온  
도홀날 새누웃다니  
아으 오지 이오맛흔 썸은  
안디 새집 드외니다

영재는 도적들을 잘못 숨어든 파계주라 하여, 이들도 無明에서부터 곧 廻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았다. 지금은 파계주로서 못된 일을 일삼으며 그릇된 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두려워 할 것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앞으로 더 큰 善業을 쌓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遇賊歌>에 제시된 현재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잘못 들어선 길에 머물고 있는 그릇된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선업을 쌓음으로써 유한한 현세적 삶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순간에서 초월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수반한다.

초월을 지향하는 시간적 구조는 일상적 시간의 속성들이라 할 수 있는 변화·현세·차별성·생성·다수성 등과 대립되는 소위 종교적 시간의 속성들이라 할 수 있는 지속·신성·독일성·존재·단일성 등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sup>19)</sup>

이렇게 지속과 신성으로 대표되는 초월적 시간은 시적 화자에게 수직적인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끊임없이 신성한 시간을 체험하고자 하는 재생의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 III. 결론

향가에 나타난 시간의식은 크게 현재 긍정의 시간의식과 현재 부정의 시간의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재 긍정의 시간의식은 주로 민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4구체 향가에서 드러난다. 4구체 향가는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으며, 지금·여기의 것을 노래한다. 이들은 현장성이 중시되는 노래이며, 현재는 시적 화자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으로 표상된다.

<薯童謠>와 <獻花歌>는 현장성 있는 구애의 노래로, 현재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風謠> 역시 현장감 있는 노동요로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통과 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덕을 쌓는 현재이다.

이런 현재 긍정의 시간의식은 오직 현재의 한 순간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로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신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하늘의 세계를 향하여 종교적으로 초월하지도 않

19) 이승훈, 위의 책, 184쪽.

는다는 점에서 실존적 시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4구체 향가에 나타난 현재는 서정적 자아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되며, 나아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시간으로 표상되고 있다.

현재 부정의 시간의식은 주로 10구체 향가에서 나타나며, 결국은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의식으로 형상화된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현재는 모두 상실과 결핍의 시간이며,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미래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때 제시된 미래는 상실과 결핍의 시간이 아닌 충만과 풍요의 시간이며, 삶을 완성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특히 <제망매가>, <원왕생가>, <우적가>에 제시된 미래는 현세적 삶이 아닌 내세적 삶에 대한 기원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종교적 세계관의 표현으로 수평의 시간이 아닌 수직의 시간, 상향의 시간에 대한 지향으로 초월적이고, 거룩한 영원의 시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나경수, 『鄉歌文學論과 作品研究』, 집문당, 1995.

백영정병욱선생10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1957.

오세영, 「文學에 있어서 時間의 問題」, 『한국문학』, 통권 27호, 1976.1.

李昇薰, 『文學과 時間』, 二友出版社, 1983.

이재선, 『우리 문학은 어디에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7.

정혜원, 『時調文學과 그 內面意識』, 상명여대 출판부, 1989.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토를라이프 보만, 허혁 옮김, 『히브리적 思惟와 그리스적 思惟의 比較』, 분도출판사, 1993.

Friedrich Kummel, 권의무 역, 『時間의 概念과 構造』,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6.

Han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Universty of California Press, 1974.

Hans Reichenbach, 『The Rise of Scientific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Abstract>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ime in *Hyangga*

Cho, Yeon-suk

Human life fundamentally inheres in time and space. The stream of time corresponds to the stream of consciousness. And the consciousness of time forms our own private time by realizing our own activities or experiences.

The consciousness of time can turn the physical and objective time into the unique and special one for individuals. Especially in literature, the consciousness of time gives birth to another meaning for readers. Hence, in the study of literature, understanding the consciousness of time will be a good suggestion for the deeper understanding of literary works.

The consciousness of time shown in *hyangga*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positive consciousness of the present time and the negative consciousness of the present time. The positive consciousness of the present time is mainly shown in 'four-line *hyangga*', which contains features of Korean folk songs. All of the 'four-line *hyangga*' has the present tense, singing the things of 'now' and 'here'.

The positive consciousness of the present time means the attitude of the belief in the present life at the very moment. It doesn't believe in the past life and the future life. It doesn't stand above religion towards Heaven, either. In these respects, the positive consciousness can be said the existential consciousness of time.

The negative consciousness of the present time is mainly shown in 'ten-line *hyangga*'. The negative consciousness is future-oriented, denying the present time and yearning for the future. The present time in 'ten-line *hyangga*' is the time of loss and lack, meaning negation. Consequently, the poetic speakers in the works long for the future, that is, the new time and the new world. The future is not the time of loss and lack, but it is the time of abundance and fullness. For them, the future is the holy time to complete their living.

Key words : Hyangga, four-line hyangga, ten-line hyangga, The positive consciousness of the present time, The negative consciousness of the present time

<논문투고일 : 2003.12.31 심사완료일 : 2004.1.31. 게재확정일 : 2004.2.14>